



‘K-클래식’ 꿈나무들 미래를 연주하다

콩쿠르 결산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국내 최고 권위의 음악영재 산실로 자리 잡은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제33회 경연에서 고등부 이원종(서울예고1·피아노)·김민지(서울예고2·바이올린)·하성민(서울예고2·바이올린)·최석훈(홍스쿨·비올라)·이예은(선화예고2·첼로)이, 중등부 김찬욱(인천해송중3·피아노)·권하나(예원학교3·바이올린)·박지율(예원학교2·비올라)·박이준(예원학교2·첼로)이 각 부문 1등을 차지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5월 18~27일 서울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벨리예술극장에서 열

중·고등부 4개부문 156명 참가

음악 영재들 절정의 기량 선포

렸다.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 4개 부문에서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경연을 치렀으며, 모두 156명이 참가했다.

심사위원단은 “기량과 음악적 성숙도가 뛰어난 참가자가 많아 수상자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부문 1등을 제외한 수상자 명단.

◆ 고등부

△피아노 : 2등 여윤지(홍스쿨), 3등 이예원(서울예

고3)

△바이올린 : 2등 유민호(서울예고1), 3등 이유은(서울예고3)

△비올라 : 2등 함송훈(서울예고3)

△첼로 : 2등 김예나(충남예고2), 3등 조이한(서울예고2), 이새봄(홍스쿨)

◆ 중등부

△피아노 : 2등 신은원(예원학교3)

△바이올린 : 2등 정유리(예원학교3)

△비올라 : 2등 유민석(예원학교3), 3등 기승현(경기양도중3)

△첼로 : 2등 권지우(예원학교2), 3등 황주희(예원학교3)

부문별 1등 수상자 소감

■ 피아노 고등부 이원종

학교 공부와 콩쿠르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콩쿠르에 잘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고 입시를 준비하느라, 올해에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여유 없이 지내다 모처럼 콩쿠르에 참가했는데 영광의 1위 입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본선에서 연주한 곡은 현대와 신고전주의적 느낌을 조화시켜 연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세계일보에 감사드립니다.

■ 바이올린 고등부 김민지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본선곡으로 준비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전악장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 다. 대곡인 만큼 작곡가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기존에 했던 연습방범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쟁겨 세분 화해 연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온 듯합니다. 무엇보다 ‘넌 할 수 있어’라며 변함없이 따뜻하게 응원해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이올린 고등부 하성민

처음 도전한 세계일보 음악 콩쿠르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깊고 아주 기쁩니다. 이번 콩쿠르를 위해 준비한 곡은제가 그동안 연습했던 곡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만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이라 그만큼 부담감이 컸고 긴장도 많이 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유효정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큰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최고의 반주로 곡을 완성해 주신 이혜영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 비올라 고등부 최석훈

저에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쿠르를 준비하느라 체력적·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이루게 돼 매우 기쁩니다. 평소 콩쿠르 등 실전무대에서의 실력이 연습했던 것과 노력한 만큼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연습하며 도전했습니다. 연습 전에는 곡의 해석에 집중했고 이후에는 최대한 몸짓과 음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표현하려 애썼습니 다. 깔끔한 소리로 연주하기 위해 활쓰기에 더욱 집중해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콩쿠르를 발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좋은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비올리스트로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첼로 고등부 이예은

만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첼로를 접한 뒤 전광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지 4년 남짓 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워낙 늦게 시작한 티라 연주해본 곡이 많지 않았지만 그중 제일 감동을 받았던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을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콩쿠르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팔의 힘이 부족하고 체중도 적게 나가는 저에게 드보르자크 작품이 요구하는 인상 깊고 강렬한 소리를 연주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감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곡을 접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신지숙, 김정림 선생님과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 늘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피아노 중등부 김찬욱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계일보 음악콩쿠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콩쿠르 당일 피아노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좋게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

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이올린 중등부 권하나

먼저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음정 하나하나 신경 쓰며 연습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콩쿠르를 준비해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항상 더 발전하는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올라 중등부 박지율

권위 있는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쁩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해보지 않은 예선 곡들이라 거의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고민하던 중, ‘후회할지 모르니 한번 도전해 보자’는 선생님 말씀을 기도로처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흐곡을 ‘바흐답게’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콩쿠르를 준비하는 시간은 제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해 보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 첼로 중등부 박이준

권위 있는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1위를 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 다. 우선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신지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선 곡인 말로 콘체르토를 좀더 깊고 다양한 소리와 빠른 리듬 안에서 음의 흔들림이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보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같은 마음으로 활력을 주시는 감지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나가는 음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평

수준 높은 레퍼토리 선정에 연주 완성도 높아

■ 피아노 고등부에 35명, 중등부에 17명이 예선에 참여하여, 각 8명과 5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고등부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 선정이 두드러졌고, 연주 완성도에서 모두 기성 연주자 못지않은 훌륭한 기량을 보였다. 입상 여부나 등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등부 참가자도 매우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간혹 페달링에 미흡함이 느껴졌는데, 손가락이 내는 많은 음표의 마지막 정리와 마무리가 페달이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평소의 자신의 템포와 프레이징에 맞는 적절한 페달링을 찾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2022년에도 여지없이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상위권 입상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집중력에 찬사를 보낸다. 클래식 경지는 하루아침에 뜨거나 인기몰이로 되는 일이 아니다. 부단한 탐구와 정진, 인내, 정신적 육체적 훈련의 결과이다. 악기를 다루는 테크닉 못지않게, 자신의 정신세계를 성찰하고 연주 스타일을 찾아가는 여정에 늘 긍지와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

이혜경 중앙대

테크닉은 뛰어났지만 일부 곡 선정에 무리수

■ 바이올린 고등부는 모두 23명의 참가자가 실력을 겨루어 최종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예선에서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연주하고 올라온 만큼 모두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고 준비가 잘 됐다. 다만 곡 선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무리수를 둔 점이 아쉬웠다. 본인이 음악적으로나 기교적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곡으로 무대에서 자신감을 보여준다면 더 매끄러운 연주가 될 것이다.

중등부는 15명의 참가자 중 2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좀 더 많은 참가자에게 상을 주고 싶었지만, 곡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할 때만큼은 초집중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해나가기 를 바란다. 참가자 모두가 수준이 아주 뛰어나고 이번 콩쿠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흔적들이 느껴져 참으로 대견하다.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선희 충남대

고등부 곡 뒷부분 음정 실수로 완성도 떨어져

■ 비올라 고등부에 17명, 중등부에 9명이 예선에 참여해 열린 경쟁을 벌여 고등부 6명, 중등부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중 최종적으로 고등부 2명과 중등부 3명이 수상하게 됐다. 중등부 입상자들은 건강한 소리와 탄탄한 기본기로 어려운 곡들을 음악적으로 잘 소화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줬다. 고등부 본선 진출자는 두 악장을 연주하다 보니 곡의 전반 부분은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으나 곡의 뒷부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음악적인 표현에만 치중해서인지 음정의 실수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참가자가 이번 콩쿠르를 통해 열심히 연습하여 준비한 무대를 경험으로 한층 더 성장했으리라 생각하며 격려를 보낸다.

김도연 성신여대

작곡자의 생각 읽어내고 활의 조절력 키워야

■ 첼로 총 40명의 전공 신청자 중 중등부 3명과 고등부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된 이번 콩쿠르는 마스크를 쓰고 무대에 서야 했던 세 번째 해이다. 본선에서는 말로, 드보르자크, 쇼스타코비치, 슈만 작품들이 올려졌으며 이번 심사평에서는 참가자 상당수로부터 공통으로 느껴진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내림 활 사용에서 활 끝쪽으로 갈 때마다 diminuendo(점점 어리게)가 되는 현상을 극복하자. 활이라는 도구가 확 잡는 손가락, 팔과 각별한 연대를 이루게끔 훈련하여 활 끝에서도 필요한 무게가 얹어지도록 조절력을 키워나가야 풍부하고 긴 선율구사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지금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작품을 지은 작곡가가 연주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작곡가의 음악적 DNA, 시대적 특징에서 혹여 너무 동떨어진 스타일의 웃을 입힌 것은 아닌지, 작곡가에 대한 경의심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서양음악은 외국어 공부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만큼 서양음악의 전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선 부단히 배워 체득해야만 한다는 점을 깨닫고 사고의 확장에도 힘쓰기를 바란다.

윤영숙 서울대

심사 집계표 (1. 부문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로 순위 결정(심사점수 동점이 2인일 경우 하나만 적용) 2. 수상자 제외한 연주자는 이름 * 표기 및 경연 순, 심사위원은 알파벳 표기)

피아노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윤**	(80)	80	83	(86)	80	80	80	80	403	
이예원	91	90	91	(92)	90	91	(90)	453	3등	
고**	89	89	(94)	89	(87)	89	91	447		
이원종	(95)	94	(90)	94	92	92	94	466	1등	
권**	(91)	89	(87)	91	87	87	89	443		
노**	(92)	(85)	85	89	86	85	85	430		
강**	88	(84)	85	(88)	86	86	88	433		
여윤지	(90)	92	94	94	(95)	90	93	463	2등	

피아노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신은원	88	89	(85)	88	(93)	93	91	449	2등	
김**	85	86	85	(87)	86	(84)	86	428		
한**	88	87	87	(90)	88	88	(85)	438		
김찬욱	(92)	(87)	88	91	91	91	92	453	1등	
정**	(90)	88	(87)	89	89	87	90	443		

바이올린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하성민	92	92	(89)	93	89	92	(94)	458	1등	
김민지	93	92	91	(94)	(90)	92	92	460	(공동)	
유민호	(93)	(89)	92	91	92	90	89	454	2등	
홍**	(90)	88	(85)	86	85	90	87	436		
신**	89	90	(84)	95	86	(91)	86	446		
박**	87	87	88	(83)	86	(91)	86	434		
최**	86	89	(81)	84	88	(92)	85	432		
김**	87	88	(80)	88	85	(90)	85	433		
김*	85	85	(80)	85	86	(90)	87	428		
이유은	89	(88)	(94)	91	88	94	88	450	3등	

바이올린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강**	(80)	84	(88)	80	80	88	85	417		
김**	(86)	88	88	87	88	(90)	87	438		
정유리	(88)	89	(92)	89	91	92	89	450	2등	
권하나	(89)	92	(94)	91	93	90	92	458	1등	

비올라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구**	(90)	88	87	86	(85)	88	86	435		
우**	85	87	86	(84)	88	90	88	434		
최석훈	91	(92)	90	(88)	91	90	90	452	1등	
임**	87	(90)	87	(83)	89	84	86	433		
함송훈	88	89	89	(86)	(92)	88	90	444	2등	
이**	88	(89)	(85)	85	85	88	89	435		

비올라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백**	88	(90)	89	90	(85)	88	88	443		
김**	(92)	90	88	89	90	(86)	89	446		
유민석	91	(92)	91	90	(87)	92	91	455	2등	
박지율	(94)	92	92	91	(90)	90	91	456	1등	
기승현	89	91	90	91	(87)	(94)	90	451	3등	

첼로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조이한	88	(89)	88	88	(86)	86	89	439	3등	
김예나	89	88	89	89	90	(87)	(92)	445	2등	
이**	86	(87)	83	85	(82)	84	87	425		
이새봄	90	(91)	91	86	(84)	86	86	439	3등	
이예은	(94)	(90)	93	91	91	90	93	458	1등	

첼로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A	B	C	D	E	F	G	합	수상
박이준	92	91	90	(89)	90	(95)	93	456	1등	
김**	(88)	88	(92)	88	91	88	89	444		
권지우	(85)	89	93	91	92	(94)	88	453	2등	
한**	(91)	87	(84)	87	86	86	87	433		
황주희	(95)	89	(88)	90	88	94	88	449	3등	